

구례, 지리산정원조성사업 중간보고회

'지리산을 품은 정원' 주제 설정·다양한 의견 수렴 내년 3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예정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자문위원 및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현지답사 및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지리산정원 조성 기본 컨셉 설정으로 지리산의 자연과 구례의 문화를 품은 5개의 주제정원과 1개의 숲길을 조성하고자 '지리산을 품은 정원'으로 주제를 정했다.

'5 GARDEN'은 구례의 드높은 하늘을 품은 하늘정원, 밤하늘 별빛을 수 놓는다

하여 별빛숲정원, 군민화합의 상징인 어울림정원, 오랜시간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와일드정원, 나만의 공간과 자연을 가지고 싶어하는 프라이빗정원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1 FOREST ROAD'는 지리산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산숲길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전략연구단, SNS홍보단 등 더욱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지리산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자문위원 및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구례군 제공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군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지리산정원이 전국 최초의 숲정

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2019 곡성군 체력왕 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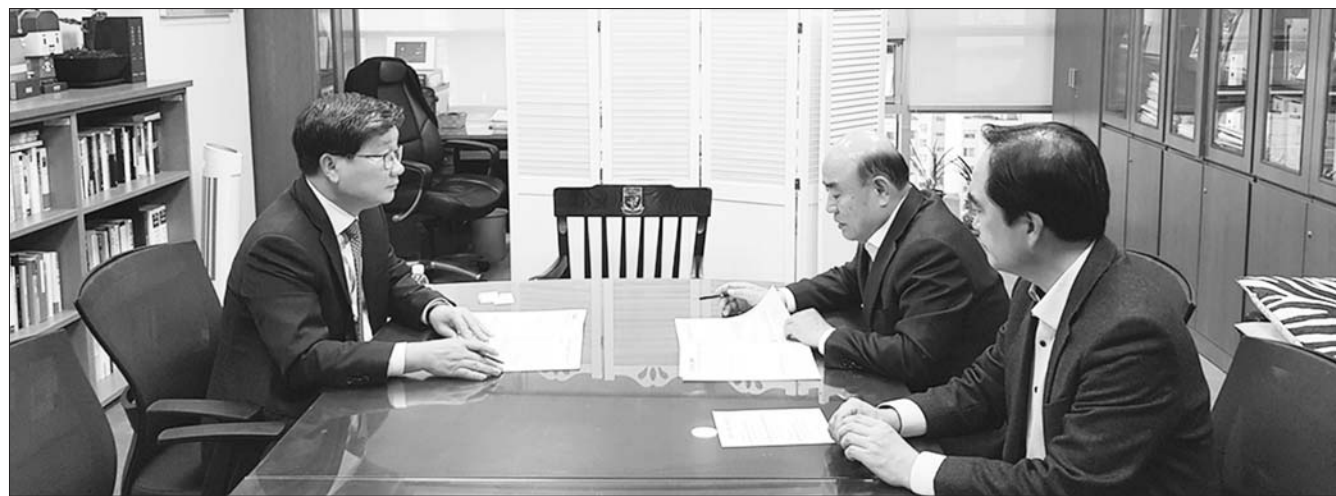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29일까지 곡성레저문화센터에서 '2019년 곡성군 체력왕 선발대회'를 치루고 있다고 밝혔다.

체력왕 선발대회는 나이를 고려해 세대별로 진행된다. 청소년기(만 13~18세), 청년층(만 19세~34세), 중년층(만 35세~49세), 장년층(만 50세~64세), 노인기(만 65세이상)로 구분되며 각 세대별로 남녀 4명씩 총 20명을 선발한다. 만 13세 이상 곡성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측정항목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6개 종목이다.

현재까지 참가자 300여 명이 체력측정에 참여했다. 참가만해도 체력인증서와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니 평소 자신의 체력 수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이번이 좋은 기회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체력인증센터(061-363-4337)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체력인증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곡성 체력왕 선발대회가 군민들에게 자신의 체력 수준을 측정해보는 동시에 운동의 필요성 체감하게 함으로써 체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최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광양시 제공

정현복 광양시장,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방문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 건의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최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원 등을 만나 내년도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날 전해철 예결위 간사, 김태연 의원, 송갑석 예결위원, 정인화,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을 만나 광양시 현안 사업인 △광양만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400억 원(국비 400억 원) △광양만권 소재부품산업 지식산업센터구축 190억 원(국비 133억 원) △남해안 휴게소 조성사업 180억 원(국비 90억 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들 현안 사업은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나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들로, 현재는 국회의심 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만나 건의하며 대응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다.

광양시장은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고 전 직원들에게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

조해왔으며, 내년도 부처별 국비사업으로 93건 1천135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킨 바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광양항 활성화 등 우리시에 필요한 주요 사업들이 다수 반영이 돼 있지만,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광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의결된다.

/광양=오승택 기자 ost6002@

여수시 국동·고소동 마을버스 운행

오늘부터 마을별 중형 승합차 1대씩 배치

여수시가 고지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18일부터 국동과 고소동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마을버스는 중형 승합차를 개조해 국동은 1일 17회, 고소동은 1일 23회 운영한다.

요금과 이용방법, 환승 등은 시내버스와 같지만, 노선은 출근 시간과 일

국동 마을버스는 출근 시간대인 새벽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25분간격으로 국동 라인아파트~서희힐스타힐스~국동 중앙아파트 등을 오간다.

이후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국동 라인아파트~해태동백아파트~국동라인아파트를 왕복한다.

고소동 마을버스는 새벽 6시 30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20분간격으로 이순신광장~제일교회~한신아파트 등을 이동한다.

오전 10시 10분부터 저녁 10시 10분까지는 40분간격으로 충무로터라~대광빌라~여수항교 등에 정차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2019년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올해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여수=주영남 기자 jyn@



여수시가 고지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국동과 고소동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 /여수시 제공

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포럼 개최

순천 문화예술의 나아갈 길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순천문화재단(이사장 순천시장 허석)은 오는 11월19일 오후1시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순천문화재단의 역할과 상생방안'을 주제로 문화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문화정책포럼은 순천문화재단이 시민들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방안과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자는 △지역문화진흥원 전 애실 단장(예술과 기술, 융·복합 창작사례로 본 지역의 문화예술) △전주문화재단 장길 사무국장(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순천문화재단 최경필 이사(문화예술의 S.O.C를 키우는 순천문화재단 만들기) △순천시청 문용후 문화관광국장(순천문화재단의 나아가

야 할 방향)가 참여한다.

토론은 지역문화진흥원 지금중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한국문화예술회 관련학회 이승정 회장, 순천시의회 이복남 문화경제위원장, 한국연구재단 강성호 책임전문위원, 밀양문화재단 이상현 문화정책팀장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순천문화재단 이병덕 상임이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순천문화재단의 정책방향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향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문화예술인들 및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천문화재단 문화정책팀(061-746-2901)으로 하면된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http://www.jndomin.kr/



산업재해 사고 사망 상해부위 1위는 '머리'

안전모 한번더 확인하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